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진정성 - 코퍼스 기반 Semi-Modal Verbs 빈도 분석 -

문 서 은 , 오 경 옥 , 이 원 호
(전남대학교)

I 서 론

교과서는 교사, 학생과 더불어 교실에서의 영어수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영어 수업이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수업 목표, 방법 및 내용은 교과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마련이다(김영숙, 1999). 교실 밖에서 자연스러운 목표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EFL 상황에서 영어교과서가 실제 영어와 다른 대화 모형을 제시한다면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진정성(authenticity)있는 자료에 노출시키는 것이 언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Price(1988, 1989)와 Scotton과 Bernsten(1988)은 실제영어와 교과서 영어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스런 언어(natural speech)를 교과서 대화의 모형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실생활 영어(authentic language)를 교재 개발 특히, 대화내용의 제작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Cathcart, 1989; Holmes, 1988; Price, 1989; Scotton & Bernsten, 1988).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진정성(authenticity of language)에 초점을 두고, 영어권 국가의 구어체 영어에서 쓰이는 Semi-Modal Verbs의 빈도를 조사해서 이를 중·고등학교의 대화체 영어에서의 빈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7차 교육과정의 영어교과서가 어느 정도 진정성(authenticity)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퍼스를 구축하여 Semi-Modal Verbs를 실제 영어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코퍼스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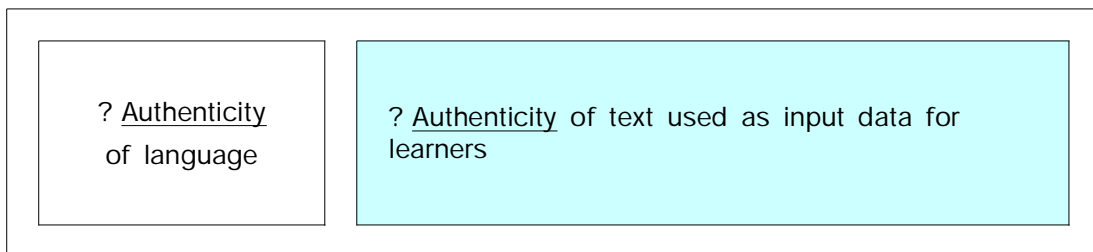
언어학자의 직관이 아닌 일반인의 실제 언어사용을 분석하여 해당 언어의 언어현실을 밝히는 코퍼스 언어학은 컴퓨터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최근에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Biber, Conrad, Reppen, 1998; McEnery & Wilson, 1996; Kennedy, 1998; Sinclair, 1991; Stubbs, 1996; Tognini-Bonelli, 1996). 1980년대부터 연구

가 본격화된 코퍼스 언어학이 대규모의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등 언어의 전반 분야에 관심을 갖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사전편찬이다. 1960년대의 코퍼스 구축은 약 100만 어절 규모에 그쳤지만, 현재의 코퍼스는 4억 5천만 어절(2002년 1월 현재) 규모를 넘어섰다. Collins COBUILD사전(Bank of English Corpus)과 Cambridge사전(Cambridge International Corpus), Longman사전(British National Corpus, Longman/Lancaster Corpus, Longman Learner's Corpus), 연세 한국어사전(연세 말뭉치)등은 대규모의 코퍼스를 구축하여 편찬된 사전으로서 실제 문헌에 출현하는 용례를 바탕으로 문법, 의미, 용례 등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한 언어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코퍼스 사전은 단어의 의미가 빈도순으로 배열되어 특정 어휘의 실제 사용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코퍼스 사전을 통하여 진정한(authentic) 표현과 실제의 활용을 알 수 있어 유용하다.

대규모의 전산화된 코퍼스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특정 단어의 빈도이며 이것을 기반으로 특정 텍스트의 특징도 알 수 있다. 또한 빈도 목록을 통해서 각 단어들이 텍스트 내에서 얼마나 유의미하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코퍼스와 비교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분포 상황도 알 수 있다. 빈도만으로 알기 부족한 것은 단어의 중의성인데, 중의성이 생길 경우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어를 추출해보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 (authenticity)

흔히 진정성(authenticity)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할 때 종종 genuineness, realness, truthfulness, validity, reliability, undisputed credibility, legitimacy 등과 같은 용어들이 인용된다. 지금까지 언어학습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이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지만 진정성(authenticity)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혼동된 용어들이 있었다. 1994년에 David Taylor(1994, p. 1)는 진정성(authenticity)을 언어의 진정성(authenticity of language), 과업의 진정성(authenticity of task), 상황의 진정성(authenticity of situation)으로 구분하였다. Michalel Breen(1985, 60-75)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세분화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 <u>Authenticity</u> of the learners own interpretation of such texts
? <u>Authenticity</u> of task	? <u>Authenticity</u> of the tasks conducive to language learning
? <u>Authenticity</u> of situation	? <u>Authenticity</u> of the actual social situation of the language classroom
SOURCE: Taylor (1994).	SOURCE: Breen (1985).

<표 1> Facets of authenticity according to Taylor and Breen

전통적으로, 진정성 있는 자료란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 즉,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이다(Nunan 1988. p. 99). 그러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교수에서 교실에서 사용할 언어자료를 제작하고 선택할 때, 목표 언어 국가에서 쓰이는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효과적인 언어 교수를 위해서 교사는 원래의 텍스트를 학생들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추어 가공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Taylor가 언급한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세 가지 요소 즉, 언어의 진정성(authenticity of language), 과업의 진정성(authenticity of task), 상황의 진정성(authenticity of situation)이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습자의 언어입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텍스트의 진정성과 관련된 언어의 진정성이다.

진정성 있는 언어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표어 국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 형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러한 형태가 학생들의 텍스트에 실제로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Semi-Modal verbs | 관한 연구들

Marianne Celce-Murcia와 Diane Larsen-Freeman이 언급했듯이, 조동사는 ESL/EFL 교사들이 다루어야 할 가장 어려운 구조들 중의 하나이다(1983). 예컨대, *must*와 *have to*의 경우 과거에는 동일한 의미로 가르쳤지만 최근의 수업에서도 그렇게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어민들 사이에서 두 가지 표현은 의미상 명백히 서로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Have to*는 행동

하는 사람 스스로의 의무가 강조되는 반면에 *i must*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의중이 강조된 말이다(Palmer, 1990). 이러한 순수 조동사 이외의 *i have to*와 같은 준조동사들의 의미 변화를 주시하고 잘 활용한다면 가장 섬세한(delicate and sophisticated)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먼저 이러한 준조동사들에 대한 몇 가지 분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Coates. J.(1983)는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에서 이러한 조동사들을 주변 서법 조동사(Marginal modals) *i need*, *i dare*와 준서법 조동사(Quasi-modals) *i have to*, *i be going to*, *i be able to*, *i be bound to*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둘째로, Quirk et al.(1985)은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1985)에서 주변 서법 조동사(Marginal modals) *i dare*, *i need*, *i ought to*, *i used to* 등과 조동사 숙어 (Modal idioms) *i had better*, *i would rather*, *i be to*, *i have got to* 등, 준조동사 (Semi-auxiliaries) *i have to*, *i be about to*, *i be able to*, *i be bound to*, *i be going to*, *i be obliged to*, *i be supposed to*, *i be willing to*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Biber et al.(1999)은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LGSWE)*에서 조동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많은 고정 관용구(fixed idiomatic phrases) 즉, *i had better*, *i have to*, *i have got to*, *i be supposed to*, *i be going to* 등을 semi-modals라고 정의하고 이는 다른 조동사들과는 달리 시제와 인칭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비정형(non-finite)으로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LGSWE에서의 semi-modals에 관한 코퍼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영어에서 많은 조동사들이 소설과 대화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Semi-Modal Verbs는 미국영어에서 더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Semi-Modal Verbs *i had better*와 *i have got to*는 주로 대화체에서 사용되어지며 특히, *i be going to*가 대화체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있다(Biber et al. 1999. p. 483-497).

본 논문에서는 Biber et al.(1999)이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에서 제시한 8개의 Semi-Modal Verbs 즉, *i be going to*, *i have to*, *i had better*, *i have got to*, *i used to*, *i need to*, *i be supposed to*, *i ought to* 연구 방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영어교과서와 고등학교 영어회화교과서의 대화부분을 코퍼스로 구축하여, 중학교 영어교과서는 KMEC(Korean Middle school English Corpus)로 고등학교 영어회화교과서는 KHCEC(Korean High school Conversation

English Corpus)로 명명하였다. 비교의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 코퍼스 Longman Spoken English Corpus(LSEC)를 이용한다.

1)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Corpus(KMEC)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Corpus(KMEC)는 교학사(배), 교학사(심), 금성출판사, 대일도서, 대한교과서, 동화사, 두산동아(김), 두산동아(장), 디딤돌, 중앙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청색, 한문출판, 현대영어사의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 총 35권의 약 10만 어절로 구성된 코퍼스이다.

2) Korean High school Conversation English Corpus(KHCEC)

Korean High school Conversation English Corpus(KHCEC)는 지학사, 대한교과서, 민중서림, 천재교육, 태림출판사의 총 5권의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로 구성된 약 5만 어절의 코퍼스이다.

3) Longman Spoken English Corpus(LSEC)

Longman Spoken and Written English Corpus(LSWE)는 대화, 소설, 뉴스, 학술적인 산문을 담은 약 4천만 단어로 구성된 영어 코퍼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대화 부분만을 임의로 Longman Spoken English Corpus(LSEC)라고 명명하여 사용한다.

2. 연구도구 및 절차

연구의 분석도구는 Oxford WordSmith Tools4.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어휘형태를 연구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표제어화나 맥락적 증거 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WordSmith 4.0에 넣으면 단어 목록(Wordlist), 중심단어(Keyword), 맥락적 증거(Concord)를 알아볼 수 있다.

연구절차는 먼저 원어민이 일상 대화에서 Semi-Modal Verbs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LGSWE)에서 사용한 Longman Spoken and Written English(LSWE) 코퍼스로부터 8개의 Semi-modal verbs의 빈도를 조사한다.

두 번째로, 중학교 영어교과서 대화부분(KMEC)과 고등학교 영어회화교과서 대화부분(KHCEC)에서 Semi-Modal Verbs의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WordSmith4.0의 WordList 기능을 사용하여 KMEC와 KHCEC에서 쓰인 총 단어수를 알아본다. WordList 기능을 사용하여 KMEC와 KHCEC의 단어수를 추출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N	Overall	1	2
text file	Overall	allmdia.txt	highcon.txt
file size	778,736	525,933	252,803
tokens (running words) in text	148,885	100,406	48,479
tokens used for word list	148,285	100,025	48,260
types (distinct words)	4,565	3,528	2,925
type/token ratio (TTR)	3	4	6
standardised TTR	31.30	30.72	32.51
standardised TTR std.dev.	68.53	68.52	64.23
standardised TTR basis	1,000.00	1,000.00	1,000.00
mean word length (in characters)	4	4	4
word length std.dev.	1.92	1.89	1.97
sentences	28,093.00	19,907.00	8,186.00
mean (in words)	5	5	6
std.dev.	3.19	2.97	3.62
paragraphs	6.00	5.00	1.00
mean (in words)	24,714	20,005	48,260

<그림 1> KMEC와 KHCEC의 WordList 통계

마지막으로, WordSmith4.0의 Concord 기능을 통해, KMEC와 KHCEC에서 8개의 Semi-Modal Verbs를 종류별로 검색하여 분류한 후 각 항목마다 관계없는 부분은 삭제한다. 예를 들어, KMEC에서 ;have to;가 몇 번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Concord 메뉴에서 search word에 《ha* to》를 입력한다. ha*를 입력하는 이유는 ;have to; 이외에 ;has to;와 ;had to;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KMEC에서 《ha* to》를 검색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6번 ;happy to;, 8번 ;hard to;, 12번 ;happen to;와 같이 ;have to;가 아닌 것들은 삭제하고 난 후에 총 빈도수를 계산한다.

N	Concordance	Set	Tag	Word #	t. #	os.	. #	os.	. #	os.
1	play tennis after school. I'm sorry, but I have to e-mail my key pals. I often e-mail			312	66	5%		0	2%	
2	going to a concert? Sorry, I can't. I have to help my mom. Which club do			2,078	409	3%		0	0%	
3	today. I'll be out until 4:30. You see I have to visit the hospital. I can't walk very			4,400	848	6%		0	2%	
4	home. That's neat. What do you have to do? Nothing, really. I just have to			4,513	869	1%		0	2%	
5	you have to do? Nothing, really. I just have to do some small things for them.			4,520	871	6%		0	2%	
6	do it by myself. Are you sure? I'd be happy to help. OK, then is it possible for			4,559	879	7%		0	2%	
7	very much. Don't mention it. I'm always happy to help. Cool! I don't believe it.			4,598	886	7%		0	3%	
8	are too many cars in this city. Yes. It's hard to breathe downtown. But what can			6,063	129	0%		0	0%	
9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We're happy to see you. Sang-jin is upstairs.			6,644	233	0%		0	3%	
10	the windows at night? Mmm... I might have to do that. What is Mary's house			8,363	521	7%		0	1%	
11	I can do it myself. Are you sure? I'd be happy to help you. Well, you could help			8,715	574	7%		0	3%	
12	How is Mr. Kim feeling now? Hey! What happened to you, In-su? I broke my leg			8,766	584	0%		0	3%	
13	more. All right. Are you ready? All you have to do is answer my question			9,198	669	4%		0	5%	
14	pay for things in the future? You won't have to carry money around. What do			9,783	758	0%		0	8%	

<그림 2> Concord에서 ha* to 검색

IV 연구결과

1. Longman Spoken English Corpus(LSEC) (KMEC) | 서의 Semi-Modal Verbs 빈도

원어민 코퍼스(LSEC)에서는 'be going to'(0.220%)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have to', 'had better', 'have got to', 'used to', 'need to', 'be supposed to', 'ought to' 순으로 사용된 반면에, 중학교 영어교과서(KMEC)에서는 'have to'(0.148%)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나머지도 'be going to', 'had better', 'need to', 'used to', 'be supposed to', 'have got to', 'ought to'의 순서로 나타났다. 'have got to'의 경우 LSEC에서는 0.080% 사용된 반면에, KMEC에서는 0.001% 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had better', 'used to'도 LSEC의 절반정도의 빈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need to'는 LSEC에서보다 2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emi-Modal Verbs	LSEC		KMEC		비고
	빈도	% (Tokens/ 1,000,000)	빈도	% (Tokens/ 100,406)	
be going to	2200	0.220%	145	0.144%	
have to	1800	0.180%	149	0.148%	
had better	800	0.080%	43	0.043%	
have got to	800	0.080%	1	0.001%	
used to	600	0.060%	31	0.031%	
need to	200	0.020%	41	0.041%	
be supposed to	200	0.020%	28	0.028%	
ought to	100	0.010%	0	0.000%	
합계	6700	0.670%	438	0.436%	

<표 2> LSEC와 KMEC에서의 Semi-Modal Verbs 빈도

2. Longman Spoken English Corpus(LSEC) † 고등학교 영어회화교과서 (KHCEC) Semi-Modal Verbs 빈도

원어인 코퍼스(LSEC)와 고등학교 영어회화교과서(KHCEC)를 비교해보면 'be going to' 와 'have to'는 비슷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be supposed to', 'ought to'는 적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had better', 'have got to'는 LSEC에 비해 KHCEC에서 사용빈도가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3>에 제시되었다.

Semi-Modal Verbs	LSEC		KHCEC		비고
	빈도	% (Tokens/ 1,000,000)	빈도	% (Tokens/ 48,479)	
be going to	2200	0.220%	89	0.184%	
have to	1800	0.180%	89	0.184%	
had better	800	0.080%	13	0.027%	
have got to	800	0.080%	2	0.004%	
used to	600	0.060%	7	0.014%	
need to	200	0.020%	16	0.033%	
be supposed to	200	0.020%	10	0.021%	
ought to	100	0.010%	1	0.002%	
합계	6700	0.670%	227	0.469%	

<표 3> LSEC와 KHCEC에서의 Semi-Modal Verbs의 빈도

3. LSEC, KMEC, KHCEC Semi-Modal Verbs 빈도

<표 4>에서 제시한 것처럼, 원어민 코퍼스(LSEC)와 중학교 영어교과서(KMEC), 고등학교 영어회화교과서(KHCEC)에서 사용된 8개의 Semi-Modal Verbs를 살펴보면, LSEC에서는 semi-modal verbs가 총 0.670% 가 사용되었는데 KMEC에서는 0.436%, KHCEC에서는 0.469%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의 Semi-Modal Verbs는 실제 원어민 코퍼스(LSEC)에서 나타난 빈도의 2/3정도 사용되고 있다. 'have got to'의 경우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KMEC에서는 0.001%, KHCEC에서는 0.004% 로 아주 적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used to' 도 실제 원어민 영어에서 사용빈도의 절반 이하로 사용되고 있다. KMEC와 KHCEC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had better'와 'used to' 의 경우에 KMEC에서 2배정도 많이 사용되었고, 'have got to' 는 KHCEC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Semi-Modal Verbs	LSEC		KMEC		KHCEC	
	빈도	% (Tokens/ 1,000,000)	빈도	% (Tokens/ 100,406)	빈도	% (Tokens/ 48,479)
be going to	2200	0.220%	145	0.144%	89	0.184%
have to	1800	0.180%	149	0.148%	89	0.184%
had better	800	0.080%	43	0.043%	13	0.027%
have got to	800	0.080%	1	0.001%	2	0.004%
used to	600	0.060%	31	0.031%	7	0.014%
need to	200	0.020%	41	0.041%	16	0.033%
be supposed to	200	0.020%	28	0.028%	10	0.021%
ought to	100	0.010%	0	0.000%	1	0.002%
합계	6,700	0.670%	438	0.436%	227	0.469%

<표 4> LSEC, KMEC, KHCEC에서의 Semi-Modal Verbs 빈도

V 결론

지금까지 국내의 영어교과서들은 수많은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진정성(authenticity)의 측면을 외면한 채 단지 외국의 언어 이론이나 외국어 습득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영어교과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한편, 교육부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이 한층 강화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교과서가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한 교수·학습의 주된 자료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어교과서는 다양한 사실 및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실제 원어민들의 영어사용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이재근, 2002).

본 연구에서는 영어교과서가 실제 원어민들의 영어사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약 10만 어절의 코퍼스와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의 약 5만 어절의 코퍼스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KMEC, KHCEC)와 원어민의 영어(LSEC)간의 Semi-Modal Verbs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 대화문에서의 semi-modal verbs의 사용빈도는 실제 영어의 2/3정도였고, *i had better*, *i have got to*, *i used to* 등의 사용빈도는 원어민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영어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과서의 대화(dialogue)부분에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8차 개정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영어 교과서의 대화 부분을 실생활 영어(authentic language)를 기반으로 하는 실제 영어 대화 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코퍼스를 기반으로 Semi-Modal Verbs의 사용빈도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영어 교과서에서 이러한 진정성(authenticity)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큰 코퍼스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다양한 범주에서의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숙. (1999). 영어 교재론. 김영숙 외 (공저), 영어과 교육론: 이론과 실제 (pp. 213-247). 서울: 한국문화사
- 이재근. (2002). 영어교과서 개발의 최근 동향. 영어어문 교육. 8(1)
- Biber, Johansson, Leech, Conrad, Finegan. (Ed.).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gman.
- Biber, D., Conrad. S., & Reppen, R. (Ed.). (1998).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en, M. P. (1985). Authenticity in the language classroom. Applied Linguistics, 6, 60-70.
- Cathcart, R. L. (1989). Authentic discourse and the survival English curriculum. TESOL Quarterly, 23, 105-126.

- Celce-Murcia, Marianne and Diane Larsen-Freeman. (1983).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New York: Newbury House.
- Coates, J. (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London: Croom
- Kennedy, G. (1998). *An introduction to corpus linguistics*. London: Longman.
- Larsen-Freeman, D. (ed.). (1980). *Discourse analysi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Newbury House.
- McEnery, T., & Wilson, A. (1996). *Corpus 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Nunan D.(1988).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ice, S. L. (1988). *Asking for information: Opening and closing sequences in real life and textbook dialogues*. Paper presented at the 22nd Annual Meeting of the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hicago, IL.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99 797).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cotton, C. M., & Bernsten. J. (1988). *Authentic conversation as a model for textbook dialogue*. *Applied Linguistics*. 9, 372-384.
- Sinclair, J.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ubbs, M. (1996). *Text and corpus analysis: Computer-assisted studies of language and cultur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Taylor(1994). *Inauthentic authenticity of authentic inauthenticity?* *TESL-EJ*, 1(2) A-1.
Retrieved October 1, 2006 from <http://www-writing.berkeley.edu/tesl-ej/ej02/a.1.html>
- Tognini-Bonelli, E. (1996). *Corpus linguistics at work*.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 Yu, J. M. (1994). *A comparison of grammatical structures in utterances of native speakers of American English and those in EFL textbook dialogu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문서은

E-mail: semun79@hanmail.net

Phone: 016-259-8959

오경욱

E-mail: oko8011@hanmail.net

Phone: 016-578-3786

이원호

E-mail: billcally@hanmail.net

Phone: 019-638-1617